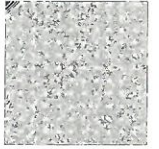


서울 주보

제2414호 2022년 9월 25일(다해)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반환용 바코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 아모 6,1ㄱㄴ,4-7

화답송 |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티모 6,11ㄱㄷ-16

복음환호송 | 2코린 8,9 참조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습니다. ◎

복음 | 루카 16,19-31

영성체송 |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유상혁 세례자요한 신부 |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우리 집에 왜 왔니?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왜 왔니?’라고 시작하는 노래를 부르며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상대방은 꽃을 찾으러 왔다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방문할 때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어떤 부자가 사는 집 대문 앞에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라자로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관광을 오기도 하고, 일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대 받고, 또 어떤 이들은 라자로처럼 차별을 받습니다. 교황님은 이번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에서 하느님 나라의 건설은 모든 이들을 필요로 하며, 그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힘없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환대하고 보호하며, 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복음은 부자와 라자로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넘을 수 없는 간격은 또 다른 갈등과 단절을 일으킵니다. 복음의 마지막처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주민과 난민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그들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격을 메울 수 있

는 방법은 환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라자로 옆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의 불균형과 무관심은 다양성을 잃게 만들고, 폭력과 갈등으로 많은 이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를 방문하는 많은 이들이 가진 소중한 가치와 능력들은 우리 사회 안에 모든 이들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우리 집에 온 이유를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기 바라십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마음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에게 스며듭니다. 분명히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도성을 짓기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낮은 출산율과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미 많은 이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작은 모퉁이 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빠진다면 아름답게 건설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도성은 무너질 지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오늘입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간격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느님의 간격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이 질문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질문이 아니라,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님께서는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며, 주님께서는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보호하시네.”(시편 146,8-9)



아프가니스탄 난민 3세 소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달궜지는 이유는 가장 낮은 데서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인종과 종교와 성별에 상관없는 정의(正義)의 사랑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짐 결심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부캐 클라라

요즘 엠제트(MZ) 세대 사이에서는 ‘부캐’라는 단어가 인기가 많습니다. 본캐(본래 캐릭터)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 자아를 말하고, 부캐(부가 캐릭터)는 본캐와는 다른 새로운 자아를 일컫습니다. 클라라가 성당에서는 저의 세례명이지만 지인들 사이에서는 저의 부캐를 클라라라고 말합니다. 별명처럼 불리는 클라라라는 부캐는 가톨릭평화방송에서 제작한 <성경원정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생긴 별명입니다.

돌아보면 하느님께서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저의 색깔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다양한 방송을 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현재 정말 감사하게도 저만의 색깔을 잘 찾아 다양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평화방송에서도 방송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성경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원정대>는 해당 방송사에서 처음 시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주일학교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성경원정대원들이 나서서 퀴즈를 풀고 대결을 해서, 이긴 팀의 본당에 간식을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성경원정대 녹화를 위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루에 2편씩 촬영했고, 가톨릭평화방송 역사상 가장 많은 카메라와 인력을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촬영에서 제작진과 출연진들 모두 손발을 맞추는 일이 수월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도 신앙 안에서 많은 대화와 같은 지향으로 함께 잘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의 끈을 놓으려 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신기하게 계속 그 끈을 놓지 못하도록 연결해 주셔서, 교사가



허송연 클라라 | 아나운서

끝나고 나서는 복음화학교로 가게 하셨고, 방송을 하면서는 가톨릭계 방송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주보에 글을 쓰도록 불러 주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봐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작용하게 하셔서 선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을 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허송연 클라라인 것을 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성당에서는 당연한 세례명이 밖에서는 부캐 클라라라는 별명으로 성당에서보다 생활 속에서 더 많이 불리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하느님의 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 때문에 하느님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한 번 더 불러주는 클라라라는 부캐 덕분에 저는 오늘도 생활 속에서 속상할 때는 주님께 하소연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내 일처럼 함께 슬퍼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 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좋게 하시는 하느님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만 전하는 허송연 클라라로 살고 있습니다.

한컷 묵상

네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고 나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31

성령의 활동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카리스마’(charisma, 은사)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선물, 특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현존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고,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이 안에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입니다.(1코린 12,6-11 참조) 즉 ‘은사’란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혹은 은총입니다. 이 은사(=은총)를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敍贖, 인간의 죄를 대속(代贖)하여 구원함) 사업을 통해 얻게 된 하느님의 은총이라 강조합니다.(로마 1,11; 5,15; 6,23; 11,29 참조) 이 은총은 성령과 직접 관련을 맺는데,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즉 공동체를 위한 봉사를 위해 이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은 ‘성령칠은’과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일곱 가지 선물은 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과 하느님에 대한 경외이다.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의 선물들을 완전히 갖추셨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3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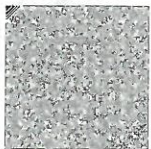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령께서 영원한 영광의 첫 열매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완덕으로, 성경은 이 열매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행, 성실, 온유, 절제”(갈라 5,22-23)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진리라 가르쳐주셨고, 성령은 “진리의 영”(요한 14,17)이시며,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역시 진리이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는 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성령의 활동과 은총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모

든 사람 안에 함께하십니다.(1코린 12,11 참조) 하지만 성령의 현존과 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이고, 이는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 밖에도 존재하고, 모든 사람 안에 활동하시지만, 가장 확실하게 현존하고 활동하는 시공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에 성령을 파견하시는데, 하느님께서 교회와 함께하시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확증하고, 지탱하며, 결실을 맺어주십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 유지되고, 성령의 현존은 교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성령의 활동은 삼위일체 하느님과 연관되고,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데에 대한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모든 신비, 모든 계시에 대한 답입니다.

하느님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숨어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이사 45,15 참조) 인간의 능력과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자 이외에 누구도 하느님을 직접 마주한 사람은 없습니다.(요한 1,18 참조) 하느님을 눈으로 마주할 수는 없지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현존 체험은 기도, 성사(특히 성체성사), 사랑의 실천 등을 통해 가능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결실, 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새로운 단계: 대륙별 단계



양주열 베드로 신부 |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시노드 교구 실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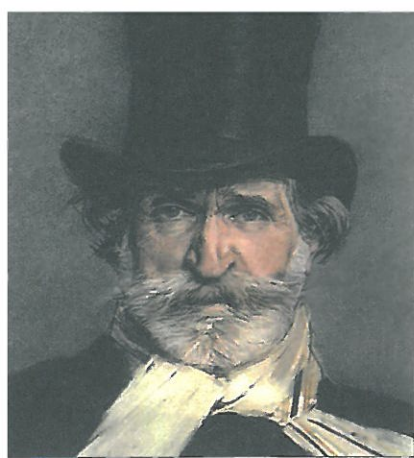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두 번째 준비 단계인 대륙별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교구 단계(교구 및 주교회의)를 통하여, 우리 교구를 비롯한 전국 16개의 교구가 교구 종합문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종합하고 식별하여 한국 교회 차원의 시노드 국가 종합문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교황청 시노드 사무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제출한 종합 의견서의 내용을 교황청 시노드 사무처는 일련의 사안들과 개별 의견들로 분류합니다. 주교회의, 동방교회, 세계 남녀수도회 장상연합회와 기타 축성 생활 연합회, 교황청 부서 등의 주제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륙별 단계를 위한 '1차 의안집'을 작성합니다.

'1차 의안집'의 작성을 위해 하느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교구 단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여전히 시노달리타스 교회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교구 단계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백성의 제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식별하며 교구 단계를 통해 드러난 성령의 이끄심을 더욱 명확하게 식별하여 드러내는 과정이기에 본질적으로 같은 흐름 안에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선발된 이들은 로마에 함께 모여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식별하며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1차 의안집'을 마련합니다. '1차 의안집'은 대륙

별 단계에서 시노달리타스 논의를 촉진시키는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륙별 단계는 문화적 식별 단계입니다. 대륙별로 진행되는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을 통해 교황청 시노드 사무처가 '1차 의안집'을 기반으로 하여 대륙별 차원에서 시노드 안에 올려 퍼진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와 성령의 이끄심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표현이더라도 문화적 상황에 따라 이해가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실제로 접근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륙별 단계는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 간의 소통이며, 참여하여 친교를 이루며 교회 사명을 수행하는 시노달리타스 단계가 됩니다.

문화적 식별 단계인 대륙별 단계를 통해 총 7개의 최종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5개 대륙의 주교회의(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오세아니아)와 북아메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최종 문서를 작성하는 구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메리카 대륙을 남과 북으로 구분하고 같은 아시아이면서도 중동 지역을 구분하는 이유는 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대화하고 참여하기 위해 교회 안에 올려 퍼지는 성령의 이끄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식별하는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대륙별 단계로 이어지는 시노드 여정을 통해 우리 교구가 시노달리타스를 배우고 익히며 실현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세페 베르디(1813-1901)
사진출처: Wikimedia Commons



고국을 떠나온 이들의 절절한 노래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Nabucco)> 중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은 세 차례에 걸쳐 유다 왕국을 침략해 귀족과 군인, 기술자 등 약 4만 5천 명의 유다인들을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시킨 일이 있으니, '바빌론 유배'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권 24,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빌론 임금의 이름은 네부카드네자르, 이탈리아어식으로 '나부코도노소르(Nabuccodonosor)'입니다. 줄여서 '나부코(Nabucco)'라고 불리죠. 이 나부코의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든 작곡가가 이탈리아의 영웅적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입니다.

우리가 아는 오페라의 반 이상이 베르디 작품일 정도로 베르디는 오페라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운명의 힘', '오텔로' 등 유명한 작품이 수도룩합니다. 그 중 '나부코'는 합창곡 '가거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한 곡만으로도 존재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1842년 초연된 이 오페라는 베르디에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기념비적 작품이었습니다. 1838년부터 3년간 딸, 아들, 아내를 차례로 잃고 작품 활동마저 저조하여 실의에 빠진 베르디에게 회생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베르디는 특히 나부코 대본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민족 히브리 포로들이 부르는 합창의 가사를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공감을 얻어 이 합창곡부터 작곡했다고 하죠. 실의에 빠진 자신의 처지가 히브리 포로들의 처지에 감정이입 된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페라는 초연 후 그저 한 오페라의 성공에만 그치지 않고, 당시 오스트리아 지배하에서 독립과 통일을 열망하던 이탈리아 국민의 애국심에 불을 붙여 히브리 포로들의 합

창곡은 이탈리아 전 국민의 애국가, 애창곡이 됐습니다. 1901년 베르디 서거 한 달 뒤, 그의 유해가 그가 은퇴 음악가들을 위해 세운 '안식의 집(Casa di Riposo)'에 안치되던 날, 3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820여 명의 합창단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가거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향기에 찬 조국의 비탈과 언덕으로 날아가 쉬어라. 요르단의 강둑과 시온의 탑에 인사하라. 오, 사랑하는 빼앗긴 조국이여! 오, 절망에 찬 소중한 추억이여!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는 왜 침묵하는가? 우리 가슴 속 기억에 다시 불을 붙이고 지나간 시절을 얘기해다오! 예루살렘의 잔인한 운명처럼 쓰러린 비탄의 시를 노래 부르자. 고통을 전달 힘을 주는 노래로. 주님이 너에게 용기를 주시리라!"

바빌론에 끌려가 노동으로 혹사당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노래하는 모습은 성경의 시편 137편 '바빌론 강기슭'에 묘사된 바로 그대로입니다. 등 떠밀려 고국을 떠나야 했던 한 맺힌 '강제 이주민'의 모습이죠. 전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고향,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기원전 유다왕국이나 현재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도 도처에 슬피 노래하는 오늘날의 '히브리 포로'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과연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덜어 줄 수 있을까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2001
지휘: 제임스 러바인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편

#Migrants-refugees #이주사목위원회 #대한난민정착기



김광두 고스마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찬미예수님, 유튜브 세계를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이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8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이주했던 성가정을 기억하며 주님 공현 대축일 이후 주일에 지내던 이날은 지난 2019년부터 9월의 넷째 주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성조 아브라함도 이주민이었고, 예수님도 난민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주민과 난민들의 상황에 각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부의 이주 난민 사목국(Migrants & Refugees Section)에서 제작한 영상을 통해 교황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교황청 이주 난민 사목국 채널에는 아래 QR코드로 소개해 드린 영상 이외에도 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다만, 한국어 영상은 이 영상 하나밖에 없어 그 점은 안타깝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셨기에 이주민들과 난민들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하십니다. 올해도 교황님께서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교황님의 담화문을 요약 정리한 가톨릭평화방송 TV의 뉴스 보도도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일하러 오거나,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가톨릭평화방송 TV에서 방송한 '토크 콘서트 For you' 76회와 77회에서 당시 우리 교구 이주사목위원장 이광휘 베드로 신부님과 이주 노동자 쉼터인 베다니아의 집을 담당하

시는 황경옥 시메온 수녀님이 출연하셔서 이주사목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아래 QR코드에 연결해 두었으니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전쟁이나 정치 탄압, 종교 박해 등을 피해 조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난민들이지요.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 협약 이행 법률인 '난민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난민 신분을 인정받고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톨릭평화방송 뉴스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대한난민 정착기>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잘 만든 프로그램이니 꼭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편견이 이 보도 영상의 댓글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들을 그저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QR코드



→ 이주민들과 난민들
- 교황청 이주 난민 사목국



→ 토크콘서트 For You 이주사목 편 재생목록
- cpbcTV가톨릭콘텐츠의모든 것

→ 대한난민 정착기 재생목록
- CPBC 뉴스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매 끼니마다 예수님과 이웃의 몫으로 한 줌의 쌀을 모아 헌금으로 환산하여 9월 25일까지 각 본당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아진 우리들의 정성은 인종, 종교, 국적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문의: 02)774-34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오늘(9월 25일)은 '이민의 날'입니다

'제108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장금선 신부	이콘연구소 담당	검) 평양교구 후원회 담당

교구청알림

성경통독 10월 피정

내용: 공관복음 / 지도: 조창수 신부
때, 곳: 10월5일(수)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
회비: 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문의)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10월6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돌봄 노동 종사자(요양보호사, 간병인, 활동지원사) 마음 돌봄 피정

때, 곳: 10월29일(토) 10시30분~30일(일) 13시30분, 우이동 명상의 집 / 회비: 피정 3만원
인원: 20명 / 10월14일(금)까지 접수
문의(접수): 02)924-2721, 2 노동사목위원회

구역반장학교

대상: 구역장 / 반장 / 회비: 5만원(10월16일 마감)
때: 10월22일~11월12일 매주(토) 13시~16시(4주)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2022 빈민사목위원회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 입주자 모집

함께 꾸는 꿈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쉼어하우스 개념의 사회주택입니다
모집대상: 19세~34세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의 가구원, 한부모·조손가족 보호대상, 자립준비청년, 기타 형편이 어려운 청년
모집인원: 총 10명(남성전용 4명, 여성전용 6명)
임대조건: 보증금 100만원, 월 관리비(월 임대료 없음)
입주시기: 10월 입주 가능 / 문의: 02)777-7261
모집일정: 9월1일(목)~30일(금)
신청방법: 이메일(withcum@catholic.or.kr) 제출

2022 하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혹은 예비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대상 및 인원: 손자녀를 둔 55세 이상의 조부모 혹은 예비 조부모, 50명 선착순 마감
때, 곳: 10월17일·10월24일·10월31일·11월7일·11월14일·11월21일·11월28일(월) 오전 10시30분~12시30분(총 7회), 서울대교구 교구청 501호
회비: 8만원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1-140646 (계)천주교서울대교구
교육내용: 변화된 아동 발달, 양육 태도와 그에 맞는 훈육·칭찬 방법, 말씀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신앙전수법 등 / 신청기간: 9월19일(월)~10월11일(화)까지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https://isenior.catholic.or.kr>)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 문의: 02)727-2385, 2386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9월26일(월) 10시30분, 양천성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9월29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이주사목위원회 / 문의: 02)924-9970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문종원 신부 개인전: 1전시실
제24회 서강미전: 2전시실
인천가대 부설 스테인드글라스연구소 '빛의 길': 3전시실
전시일정: 9월28일(수)~10월3일(월)

녹음봉사센터 제 13기 녹음봉사자 모집 및 교육안내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녹음봉사센터에서 독서 장애인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녹음도서제작에 참여할 제 13기 녹음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회비: 1만원
대상: 40세~52세 이하 여성, ① 독서전달력 및 음성과 발음이 정확하신 분, ② 표준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③ 주간(9시~18시) 활동이 가능하신 분, ④ 컴퓨터 능숙자(녹음과 편집을 컴퓨터로 작업)
모집인원: 선착순 20명 / 신청기간: 9월30일(월)까지 접수
봉사영역: 독서장애인들을 위한 도서 녹음 및 제작
교육일정: 녹음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10월6일(목) 10시 /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매주(목) 10시
모든 교육 수료 후 녹음봉사활동이 가능합니다
곳: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녹음봉사센터
신청방법: 이메일(happy34@omni.or.kr) 신청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와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happy34@omni.or.kr) 전송
문의: 02)2290-3111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 권익옹호팀(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회비: 1만원
지도: 이승구 신부 /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직장인	10월2일(월)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10월3일(월) 13시30분~16시30분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안내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신청: 9월26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 전 구간 도보 이동(3시간 이상),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일시	코스	비고
10월4일(화) 오전 9시부터	3코스 일치의 길 (예고개성사-삼성산성지)	성지순서 변경하여 순례 일부구간 대중교통 이용
10월8일(토) 오전 9시부터	2코스 생명의 길 (가좌동성당-당고개순교자지)	3코스 일부구간 순례 포함
10월18일(화) 오전 9시부터	1코스 말씀의 길(명동대성당-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소방사목 봉사자 모집

내용: 교육과정 수료 후 활동
대상: 견진받은 60세 이하의 교우
문의: 02)727-2078, 010-4799-2078 직장사목팀

사형제도 폐지 세미나

주제: 중형주의 형사정책과 범죄억지력
때: 9월26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2층)
주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폐지소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음 봉당 갖기) 미사
때, 곳: 1337차 미사 9월2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대신리 본당, 관후리 본당
미사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후원회 미사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 문의: 02)727-2415
때, 곳: 9월30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홍보위원회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 - 피아니스트 에드윈 김의 '마음의 눈'
대상: 누구나(선착순 300명) / 전석 무료
출연: 피아노 에드윈 김, 첼로 신호철, 팜페라테니 박종수 / 문의: 02)751-4105
때, 곳: 10월6일(목) 19시30분~21시, 가톨릭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중구 중림동)
주최: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신청: 네이버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가톨릭학생회(KYCS-Cell) 회원 모집

가톨릭학생회는 로마교황청 산하 국제가톨릭학생회(IYCS-International Young Catholic Students)에 가입되어, 활동과 나눔을 통해 또래들과 체험을 공유하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어우러지며 건강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톨릭학생회로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대상: 가톨릭 신자 청소년(14세~18세)
곳: 가톨릭 청소년회관(혜화동)
활동: 정기적인 학생모임 및 체험활동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kycs.or.kr/cell)

한마음한몸살예방센터 '슬픔 속 희망찾기' 프로그램

10월 유가족을 위한 피정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대면 피정	10월8일(토)~9일(일), 예수고난회 우이동 명상의 집
온라인 피정	10월20일(목)~21일(금)

신청: 온라인 및 대면 피정 중 택 1
신청방법: 전화 및 홈페이지(3079.or.kr) 참조
문의: 02)727-2495 유가족 담당 수녀

인준단체 일람

모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10월14일(금)~16일(일), 명상의 집(우이동)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고 마르타 수녀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0월1일~31일 / 문의: 010-8874-7970

하느님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팔로티회)

때: 9월27일(화) 12시20분(강의·성시간)~15시(미사)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6층 / 문의: 031)707-4450

젊은이 가을 쉼 피정

때: 10월21일(금)~23일(일) 2박3일 / 회비: 6만원
곳: 라베르나 기도의 집(명창) /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5715-1702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노들담 청년 기도모임(그.해, 19~45)

때, 곳: 10월8일(토) 17시~18시30분, 노들담수녀원
(인천 계산동) / 대상: 19세~45세 청년 선착순 20명
문의: 010-3930-6730 노들담 수녀회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10월18일~20일, 10월24일~26일, 11월18일~20일, 12월3일~5일, 12월9일~11일
성지순례(추자도성지 포함)	11월12일~15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7차	10월7일(금)~1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08차	11월11일(금)~19일(토)	
제109차	12월2일(금)~10일(토)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말씀 피정	10월5일(수)~8일(토)	문의: 010-3340-0201
성경완독	10월21일(금)~29일(토)	
청년 종교문화여행 순례 피정 (풍수원 옛공소길 순례)	10월14일(금)~16일(일) 회비: 1만원 / 선착순 30명 문의: 010-9715-1203	

예수수도회 10월 피정

곳: 메리워드 센터(서울 오류동)

청년주말 피정	10월8일(토)~9일(일)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010-2314-1645 카카오톡 채널: 빛더하기_예수수도회
3545 피정	10월28일(금)~30일(일) 35세~45세 미혼 여성	
음악 피정	10월28일(금) 19시~21시 10월15일까지 접수 / 회비: 2만원	
엄마와 딸 피정	11월5일(토)~6일(일) / 선착순	
영신수련 8일 피정	10월11일(화)~20일(목) / 010-9608-0208	

돌아보며 깨닫기

혼인 성소 찾기 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영성 심리상담 / 문의(예약): 010-3173-2665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0월7일~10일·10월21일~24일·11월4일~7일·11월18일~21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야외미사, 성체조배, 묵주기도
때, 곳: 10월1일(토) 16시~18시, 절두산순교성지 야외 제대(우천시 가톨릭회관 205-2)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파티마의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와 미사

집전: 염수정 추기경 / 준비물: 묵주, 미사 준비
때, 곳: 10월13일(목),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문의: 02)3147-240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대피정

주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를 봉헌한다."
(메시지 193번) / 강약: 이병근 신부(인천교구)
미사: 손희송 주교와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때: 10월3일(월) 10시~17시, 불광동성당
문의: 010-5361-2617 박성중 총무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 CLC)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11월4일(금)~6일(일) 2박3일
곳: 성바오로 피정의 집(시흥시 계수리)
10월27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월~금)

루하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찬양을 통한 치유회복기도회에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10월20일~22일·10월24일~26일·11월1일~3일·11월15일~17일·11월21일~23일·12월31일~2023년 1월2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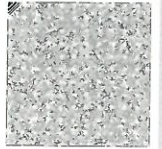
수제 묵주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묵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7기 개강

때: 9월26일(월) 10시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다함께 성가들' 발성교실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 문의: 010-9842-8818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0월4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소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 단기 1년 또는 장기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해외 학교법인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곳: 초보자 수요일반 14시·토요일 오후반 14시,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오르프'와 함께하는 쉼, 움직임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10명 이내) / 카톡ID: k_off
때, 곳: 10월11일~11월1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예수회센터 영성강좌

개강: 9월29일(목) / 권오연 신부
영의 식별(Discernment of Spirits): 현장 강의 매주(목) 14시~16시·동영상 녹화 강의 링크 발송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성 이나시오 학교 학생 모집

1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함께 공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9월31일까지 접수(수업료 없음)
대상: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성별·연령 무관)
때, 곳: 19시~22시(주5일 수업), 서강대학교
교무실: 마포구 대흥동 22-60 / 문의: 02)717-8248 교무실, 010-2787-4721 김동욱 선생, 010-9770-4375 송명근 선생

성경속에서 나를 만나다 / 문의: 010-2037-9262

대상: 여성 신자 / 회비: 7만원(적주 7회)
곳: 전교가르멜 수녀원(주최, 전철 3호선 경복궁역 근처)
첫째·셋째(화) 10월4일부터 10시~11시30분(대면)
둘째·넷째(화) 10월11일부터 20시~21시30분(비대면)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31차) 수강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202호 / 회비: 7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인원: 기초반 10명, 초급반 10명, 중·고급반 약간명
개강: 10월4일(화) 기초·초급반, 10월6일(목) 중·고급반
접수: 9월25일~10월6일(선착순) / 문의: 010-6219-1575

(화) 기초반 10시30분~13시	초급반 14시~16시30분
(목) 중급반 10시30분~13시	고급반 14시~16시30분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레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9월28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레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9월29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9월27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켈기도,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10월1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10월1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령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9월30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9월26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파비아노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이경상 신부 / 이번달 웅기장학회 가족을 위한 월례미사는 운영위원장 박신언 몬시뇰님 영명축일 축하미사로 봉헌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9월 영화 치유 미사 및 가톨릭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1) 9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9월28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2) 제9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10월13일까지 / 홈페이지(caff.kr) 참조

가정선교회 10월 행사

미사, 식수준비, 방역수직 준수 / 문의: 010-6281-8626, 010-5674-8511, 010-2367-2297, 02)777-1773 대표

첫 토 성모 신심미사	10월1일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김용렬 신부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10월5일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배광하 신부, 이현주 회장

인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임양상당: 02)764-4741~3(www.holyfac.or.kr)

제22회 한국가톨릭작곡가협회 성음악 발표회

때: 10월13일(목) 오후 8시 / 문의: 010-4665-8898
곳: 가톨릭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중림동)

가톨릭여성연합회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박정우 신부(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주제: 생명의 소명과 충만한 삶 / 문의: 02)778-7543
때, 곳: 9월27일(화) 10시,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전문심리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개인상담-정서 불안, 우울, 분노, 의사소통의 어려움

혜화동성당 혼배미사 / 문의: 02)764-0221

혼인미사시간 매주(토) 11시·14시 / 혼인미사를 위한 대성전, 연회장, 신부대기실, 폐백실, 주차장 완비
곳: 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도보 3분

인천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교육 및 피정

청소년·청년·에비자·성인 위탁 및 자체 교육·피정 / 문의(접수): 032)465-0835
참목·대월 기도 피정: 10월12일~16일·11월11일~1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기도패 신형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 봉헌(명절·위령의날), 매일 1회 추모와 축복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2023년 중림동약현성당 혼인예식 추천

추천: 10월16일 15시(안례 후 추천), 중림동약현성당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60만원(카드 불가)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2023년 1월~3월 혼인예식은 홈페이지 확인 후 선착순 예약 받습니다
문의: 02)362-1891(www.yakhyeon.or.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가족관계 회복과 성장, 소통훈련	10월18일~11월29일 매주(화) 10시~13시(7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기피, 강박행동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관단체 알림

햇살사목센터 후원회 미사

때: 매일 첫번째(토) 10월1일 15시 / 문의: 02)744-0840
곳: 햇살사목센터(혜화로2길20) / 소장: 조재연 신부

직원모집

성 앵베르 센터 직원 모집

분야: 별정직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업무: 조리업무 등 제반업무 가능한 분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문의: 02)2280-1784
채용시까지 이메일(imbert@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육아휴직 대체)

대상: 세례받은 분(교회기관 경력자 우대)
업무: 비서 및 사무 행정 업무 1명(1년 3개월 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9월27일(화)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성수동성당 방호원·주방근무자(계약직) 모집

인원: 방호원 주간·야간 각1명, 주방근무자 1명(성별·연령 무관) / 문의: 02)497-2651
업무: 시설관리 및 유지, 방호, 미화 등 전반적인 관리일 업무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4774, 성동구 성덕정길23 성수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kyeon@seoul.catholic.kr) 접수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조리사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남녀 요양보호사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수도회 성모모임	때	곳	문의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신길6동 여의대방로65	0507-1306-1505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0월2일(일) 10시	서울 분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양성소	02)980-0385, 010-6462-0385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10월1일(토) 14시	본원(경기도 남양주시)	010-4241-1210 성소 담당
성체 선교 글라라 수녀회	수시	대전 본원(대전 서구 갈마로 187-1)	010-9683-6848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10월2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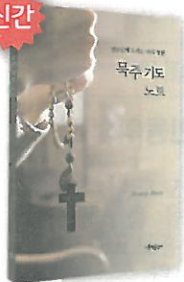
확고한 구원의 표징, 묵주 기도

- 알랭 드 라 로쉬 복자



묵주 기도 성월 추천 도서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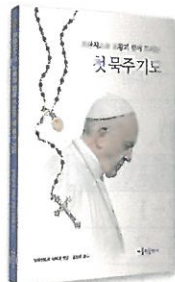


묵주 기도 노트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며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올리다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7,000원

묵주 기도가 간절히 바라는 청원이 있을 때, 혹은 어려움 속에서 힘과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만 바치는 기도가 아닌 우리 일상에서 조금 더 스며들도록 이끌어 주는 책입니다. 《묵주 기도 노트》와 함께 하루하루를 큰 은총으로 가득 채워 보세요. 성모님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드리는 첫 묵주 기도

교황님의 말씀과 함께
묵주 기도를 바쳐 보세요

알레산드로 사라고 지음 | 8,000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 묵주 기도의 신비를 더 깊이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묵주 기도서입니다. 이번 묵주 기도 성월에는 교황님의 이끄심에 따라 성모님께 보호와 은총을 전구해 보세요. 나의 기도에서 교황님의 말씀이 더해져 여느 때 보다도 더 특별한 묵주 기도를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의 9일 기도

세 번의 9일 기도로 바치는
청원과 감사

우원명, 유재용 엮음 | 4,500원

각 신비를 마치 한 폭의 성화처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성공적으로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묵주 기도서입니다. 기존의 묵주 기도 방법에서 시작 기도 부분과 마침 기도 부분을 보강하여 더욱 정성을 모아 묵주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마리아의 비밀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함께한 성모님의 고백!

산티아고 마르틴 지음 | 18,000원

성모님이 당신 삶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회고록이 발견된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까요? 스페인에서 10만 부 이상 판매된 문학 작품 《마리아의 비밀》에서 예수라는 아들을 둔 여인 마리아의 생애와 그 안에 담긴 온유한 사랑을 느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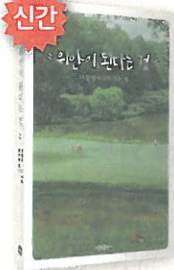
안셀름 그윈 신부 신간 《위안이 된다는 것》 출간 기념

《위안이 된다는 것》 출간 기념 안셀름 그윈 신부 온라인 강연회



- 일자 : 10/15 (토) 17시
 - 주제 :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나를 위한 위로
 - 강연회 방식 : 유튜브 채널 실시간 라이브 공개
 - 채널 : 가톨릭출판사 YOUTUBE 채널 '가톨릭북'
- ▶ YOUTUBE에서 '가톨릭북'을 검색하세요

신간



위안이 된다는 것

“이제부터 어떤 것들은 새롭게,
그리고 달리 보게 될 것이다.”

안셀름 그윈 지음 | 가격 미정

심리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안셀름 그윈 신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영성가가 이야기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대상과 그 방법을 만나 보세요.



제2247(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안령회장 : 지병국(비오로) 010-8733-651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8월~9월).

성 명	세 례 명	구역/반
심수연	크리스티나	2-1
배정실	모니카	3-2
정정우	레지나	5-1
이창민	라우렌시오	5-4
백민혜	미카엘라	7-1
김연규	대건안드레아	7-1
민경률	세례자요한	7-5
나경엽	요셉	8-1
윤종진	대건안드레아	9-4
서진영	릴리안	10-2
이성민	마리아	10-7
심종우	루스티코	12-3

◎ 전입교우 환영식

일시 : 9월 25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드레아

일시 : 9월 27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병자영성체 : 9월 30일(금) 10시 미사 후

◎ 성모 신심 미사 : 10월 1일(토) 오전 10시

◎ 바오로 시니어대학 개강 안내

개강일시 : 10월 7일(금) 10시미사 후

수강신청 : 수강을 원하신 분은 성당사무실에 직접 신청

담당자 : 한성근 바오로 (010-7508-7031)

차광옥 알렉산더 (010-6314-2198)

◎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성모마리아의 정신인 기도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정영희 안나 (010-5006-1158)

차광옥 알렉산더 (010-6314-2198)

김순교 안젤라 (010-2223-1345)

◎ '가정 기도 길잡이' 신청 받습니다.

교구 사목국에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생활에 도움을 드리교자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이 함께 기도를 봉헌할 수 있도록 '가정 기도 길잡이' (거룩한 가정공동체를 위한)를 발간하였습니다. 새롭게 마련하여 교구장님의 인준을 받아 수록한 여러 기도와 예식을 통해 본인과 가정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일생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기억하고 봉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기도 길잡이입니다.

가격 : 2,000원(추후에는 가톨릭 서점 및 일반서점에서 정가 5,000원에 판매)

기간 : 9월 29일(목) 12:00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서명 참여 요청 건 (9월 30일까지)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5만 국회 국민동의청원' 서명운동 동참 및 홍보요청과 더불어 교구공동체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 청원 서명운동은 보편교회와 함께 우리 교구가 진행하고 있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안에서 '찬미받으소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좋은 실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에 접속해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청원 링크 : <https://bit.ly/탈석탄법제정>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 <https://www.catholic.or.kr>

◎ 감사 인사 드립니다.

남성구역모임에서 주최했던 '풋살경기'가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원 덕분에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족구대회 이후 두 번째,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모임에서 뵈겠습니다. 다음엔 '불령'입니다.

◎ 오늘은 헌미헌금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9. 25)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6	852 (40.6%)	811 (38.7%)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성당유지보수 기금 (2022년)

익 명오만원 누 계 ...69,613,300원

◎ 감사헌금 (9월 12일~18일)

한인경이십만원	정희원칠만원
정수진칠만원	홍동수오만원
익 명일백만원	김재균오만원
노연숙오만원	성주혜오만원
최범락오만원	송명자일십오만원
배금좌일백만원	박명숙오만원
정영자일십만원	래자카타리나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순교자 대축일)

교무금7,300,000원

주일헌금4,903,0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1,960,000원

입당	459	봉헌	512	성체	182	파견	285
----	-----	----	-----	----	-----	----	-----



내 영혼 아 주님을 찬양 하 여 라